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이은숙¹ · 강희순²

전남과학대학 간호과 부교수¹, 순천대학교 성희롱성폭력상담실 팀장²

Factors Influencing the Experiences of Sexual Violence Victims while Dating as College Students

Lee, Eun Sook¹ · Kang, Hee Sun²

¹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Chunnam Techno College,

²Leader, Sexual Harassment-Violence Counseling Center,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victims while dating as College Students. **Methods:** With a correlational survey design, data was collected by self-report questionnaires from 560 college students who had reported sexual violence during a date. The data was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College students while on date who reported sexual violence showed a significantly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sexual assertiveness, and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with the gender role stereotypes,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date sexual violence inflictions, and family violence. A combination of date sexual violence inflictions, self-esteem,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sexual assertiveness all accounted for 41% of the variance in date sexual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Conclusion:** Self-esteem and sexual assertiveness must be progressively uplifted in order to prevent date sexual violence. A specific program established to reduce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would be useful in order to reduce the number of sexual violence victims for college students who are dating.

Key Words: Student, Sex, Violence, Assertiveness, Permissiveness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 발달 과정에서 대학생 시기는 이성교제를 통해 자신의 욕구와 상대방의 욕구를 조절하며 친밀감 획득이라는 발달과업을 성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원치 않은 성적 접촉으로 인한 신체적·심리적 피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 주체성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이다(Choi, 2005). 특히 데이트를 통해 이성에 대한 막연한 호기심과 관심이 보다 구체화 될 수 있고,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잘못된 이성교제로 인해 학업성취의 저하, 이성에 대한 불신, 임신중절, 데이트 성폭력 등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대학생들의 성행동경험 조사연구(Kim, 2001)에 따르면 70% 이상이 이성교제를 하고 있으며, 이들 중 48% 정도가 애무 이상의 성적 접촉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이성교제의 상황에서 각자의 성적 관심이나 성행동의 요구수준이 다를 때, 성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성적 갈등은 원하지 않는 성관계의 응낙, 데이트 성폭력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Ahn, 2002; Jang & Cho, 2001). 이러한 데이트 성폭력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주요어: 학생, 성, 폭력, 주장성, 허용도

Address reprint requests to: Kang, Hee Sun, Sexual Harassment-Violence Counseling Center, Suncheon National University, 413 Jungang-no Suncheon 540-742, Korea, Tel: 82-17-606-5226, Fax: 82-61-750-3169, E-mail: ganghs7205@hanmail.net

투고일: 2010년 7월 20일 / 1차심사완료일: 2010년 8월 16일, 2차심사완료일: 2010년 9월 2일 / 게재확정일: 2010년 9월 2일

일방의 억압과 강요에 의해 일어나는 성폭력으로, 주로 데이트 상대로부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Diann & Dianne, 2002; Rohini & Christine, 2006).

데이트 성폭력의 실태를 살펴보면, 데이트 성폭력 피해 연령은 16~24세에 주로 발생하고 있고, 미국 대학생의 23% 정도가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milio & Monica, 2008). 이미 서양의 경우 데이트 성폭력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고, 데이트 성폭력이 정신건강은 물론 신체건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Luthra & Gidycz, 2006).

국내의 연구에서도 20.5%의 대학생이 데이트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으며(Jang, 2002), 데이트 성폭력이 다른 연령에 비해 주로 대학생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는 20대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그런데 데이트 성폭력의 경우 다른 폭력의 형태와 달리 대부분 데이트 상대로부터 성폭력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피해로 인해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도 정신적, 신체적 후유증으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었다(Lee, 2007).

데이트 성폭력은 일반적인 성폭력과 비교해 보아도 신고하거나 주변에 알리는 경우가 훨씬 더 드물며, 이것은 데이트 성폭력을 피해자 또는 가해자 모두 피해나 가해의 사실에 대해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히 성관계나 성접촉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우리사회의 성문화에서도 데이트 성폭력을 사회문제가 아닌 사랑의 행위나 개인적인 성문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Jang, 2003). 데이트 성폭력은 개인의 정신적 건강은 물론 신체적 건강에도 심각한 해를 주고(Kim, 2002; Seo & Lee, 2002), 성폭력으로 인한 부정적인 생활태도와 우울, 외상 후 스트레스 등이 정신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Kim, 2002; Jang, 2003) 데이트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심리적, 정신적 간호 측면에서의 접근이 더욱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데이트 성폭력과 관련되어 연구된 요인으로는 성별, 범죄경력, 사회적 지지도, 통제력, 폭력에 대한 허용적 태도, 자아존중감, 성적 자기주장성, 성역할 고정관념, 성차별적 태도,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 성평등 의식, 강간통념 수용도, 성격특성 등이 있다(Ahn, 2002; Jang, 2002; Jang & Cho, 2001; Nam, 2003). 특히 성폭력 피해 경험자가 대부분 여성으로 조사되었으나(Jang, 2002; Jang & Cho, 2001; Kim, 2005),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어(Kim, 2005) 데이트 성폭력 피

해에 대한 연구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한 편이다.

데이트 성폭력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성적 자율권이 낮은 경우에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성적 자기주장은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서 데이트 성폭력 상황에 대한 낮은 인식이 데이트 상황에 있는 성적 자기주장을 약화시켜 성폭력의 피해경험을 높인다고 하였다(Lee & Lee, 2005). 이러한 연구는 데이트 시원치 않는 성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또 어떤 행동을 성폭력으로 인식하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변인임을 밝혔다.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에 대한 연구들에서 성폭력 인식도가 낮고 성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성폭력 가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성폭력 인식도와 성폭력 허용도가 가해경험의 요인으로 나타났고(Nam, 2008),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연구에서도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가 낮고 성폭력 허용도가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Jang, 2002) 성폭력 피해경험과 가해경험과의 연관성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경우 Kim (2006)은 데이트 성폭력을 포함하는 데이트 폭력은 미래의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부부관계의 많은 문제들이 혼전단계에 뿌리를 두고 있어 데이트 중의 갈등표출이나 해결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은 커플에게서 결혼 후 갈등도 많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데이트 폭력이 데이트 기간에 한정하여 관련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단일한 현상이 아니라 결혼 후 가정폭력, 특히 부부간의 폭력으로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이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부부폭력의 예방은 근본적으로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Nam, 2008).

이렇듯 데이트 성폭력은 당시의 문제뿐만 아니라 결혼 후 부부간의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데이트 성폭력'이라는 용어조차 낯설다. 현재 국내에서 성폭력과 관련된 연구는 어린이 성폭력과 친족 간의 성폭력, 청소년 성폭력, 직장 내 성희롱,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 등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들이 최근에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나 아직은 관련변인 연구들이 제한되어 있으며, 여러 변인들 간의 관계성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성교제가 가장 활발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규명하여 데이트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의 차이를 검증한다.
-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과 심리사회적 변수들의 정도를 확인한다
-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과 심리사회적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한다.
-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을 조사하기 위한 상관성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표집방법

연구대상은 데이트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여 데이트 성폭력의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대학생으로, 광주·전남·전북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5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중 1회 이상 이성 간의 데이트 경험이 있고, 데이트 성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학생 중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총 560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표집방법은 자료수집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임의표집법을 사용하였다. 데이트 성폭력이라는 민감한 주제와 관련하여 연구대상자들이 속해 있는 각 대학 취업지원부서의 센터장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조사를 의뢰하였으며, 취업교과목 담당 교수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대상자의 윤리보호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수강학생 개개인에게 서면동의를 받고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조사기간은 2008년 5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하였다.

3. 연구도구

설문지 내용은 자아존중감 10문항, 성역할 고정관념 15문항, 성폭력 허용도 10문항, 데이트 성폭력인식도 10문항, 성적 자기주장성 11문항,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11문항,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 11문항, 가정폭력경험 10문항과 주관적인 성지식 수준 1문항,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성, 결혼상태, 종교유무, 부모형태, 학년, 거주지 등 6문항을 포함하여 총 9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혹은 부정적 평가와 관련된 것으로써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자기존중의 정도를 의미하며(Rosenberg, 1965),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 (1965)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참고로 Song (2006)이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자아존중 정도와 자아승인 양상을 측정하기 위해 고안된 것으로 긍정적인 문항 5개, 부정적인 문항 5개, 총 10문항의 5점 척도의 도구로서,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3$ 이었다.

2) 가정폭력경험

부부폭력 노출경험과 자녀폭력 피해대경험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traus (1979)가 제작하여 사용한 갈등관리행동척도(The Conflicts Tactics Scale, CTS)를 Kim (2005)의 연구에서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부·모의 가정폭력경험으로 구분된 총 10개 문항을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측정된 점수를 의미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을 많이 경험한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부의 가정폭력경험은 Cronbach's $\alpha = .90$ 이었고, 모의 가정폭력경험은 Cronbach's $\alpha = .87$ 이었다.

3) 성역할 고정관념

성역할 고정관념을 측정하기 위해 Kim (1999)이 개발한 성 고정관념 척도를 Koh (2006)가 문화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가정적 성역할 고정관념, 직업적 성역할 고정관념, 사회적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구성된 총 15문항의 5점 척도의 도구로서, 점수의 범위는 15점에서 7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역할 고정관념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

도 Cronbach's $\alpha = .85$ 이었다.

4)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는 데이트 성폭력 피해나 가해 당시에 그 행위가 데이트 성폭력 인지를 분명히 아는가에 대한 정도를 의미하며, Sugarman (1996)이 개발하고 Nam (2003)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경미한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심각한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로 구성된 총 10문항의 5점 척도의 도구로,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1$ 이었다.

5) 성폭력허용도

성폭력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 행위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는지의 성폭력 행위 허용도를 측정하기 위해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00)에서 개발한 척도를 Park (2007)이 수정 보완하여 사용된 총 10문항의 5점 척도 도구로, 물리적 성폭력 허용도, 언어적·정신적 성폭력 허용도를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폭력에 대한 허용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90$ 이었다.

6) 성적 자기주장성

타인의 성 욕구나 의도에 의해 강요되지 않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성 욕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의사소통 방법인 성적자기주장은 원치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 접촉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성적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으로 Patricia 등(1997)이 개발한 성적자기주장척도를 Choi (2005)이 번안하고, 성적 자기결정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Kim (2006)이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원치 않은 성적 자기주장성, 예방적 성적 자기주장성, 원하는 성적 자기주장성으로 구성된 총 11문항의 5점 척도의 도구로서, 점수의 범위는 11점에서 5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기주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0$ 이었다.

7)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은 Nam (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로, 남녀차별금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제시한

성희롱(6문항)유형과 성폭력 특별법과 성폭력 관련 연구기관에서 분류하고 있는 데이트 성희롱(5문항)으로 CTSII에 포함된 성폭력 관련 척도를 활용해 구성된 도구로 측정하였다. 신체적 성폭력 가해경험, 심리적·언어적 성폭력 가해경험으로 구성된 본 도구는 총 11문항의 5점 척도의 도구로서, 점수의 범위는 11점에서 5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6$ 이었다.

8)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은 이성 관계를 목적으로 데이트 관계 중에 피해자의 성적인 의사와 무관하게 상대방이 성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성폭력 피해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Jang (2002)이 개발하여 사용한 도구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1문항의 5점 척도의 도구로, 요인분석 결과 신체적 성폭력 피해경험, 심리적 및 언어적 성폭력 피해경험으로 구성되었다. 점수의 범위는 11점에서 55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alpha = .84$ 이었다.

9) 성지식 수준

성지식 수준은 연구대상자가 주관적으로 지각하고 있는 성지식 수준을 질문하는 형태의 문항으로 “본인의 성지식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로 구성되었으며, ‘잘 모르는 편’ 1점에서 ‘매우 잘 아는 편’ 5점까지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인 성지식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문항은 본 연구자가 전문가 자문을 통하여 문항을 구성한 후 정준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신뢰도 Cronbach's $\alpha = .81$ 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폭력 관련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각 측정변수들의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 성폭력 피해 정도의 차이는 t-test, ANOVA, Duncan 사후 검정으로 분석하였다. 데이트 성폭력 피해 정도와 측정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에 독립변수인 ‘자

아존증감', '가정폭력경험', '성역할 고정관념',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 '성적 자기주장성',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 가 전체적으로 데이트 성폭력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에서는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으로 처리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유의수준.01에서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성은 더미변수(남=1, 여=0)로 처리하여 분석하였다. 회귀가정을 검정한 결과 독립변수들의 공차한계는 .82~.98, 분산확대인자(VIF)의 범위는 1.03~1.57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으며, Durbin-Watson 통계량은 2.01로 2에 가까워 독립성 가정을 만족하였고, 모형의 선형성과 오차항의 정규성 가정도 만족하였다. 본 연구의 검정을 위한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 < .05$ 에서 채택하였다.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에 따른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정도의 차이

대상자는 총 560명으로 남학생이 144명(25.7%), 여학생

이 416명(74.3%)으로 여학생이 3배 정도 많았고, 종교는 없는 경우가 54.5%이었다. 부모 형태는 양친부모가 89.8%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었고, 1학년부터 4학년까지 고르게 분포되었으며, 거주지는 대도시가 33%, 중소도시가 53.4%이었다. 결혼유무에서는 미혼자가 545명(97.1%), 결혼 전 재학 중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한 기혼자가 15명(2.7%)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성지식 수준을 살펴보면 '보통 수준'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46.8%, '잘 아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4.1%, '매우 잘 아는 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8.8%로 대체로 본인의 성지식 수준이 보통 이상이라고 지각하고 있었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성지식 수준에 따른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F=5.09$, $p < .001$)과 성지식 수준($F=4.51$, $p = .004$)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고, 성지식 수준에서는 매우 잘 아는 편이라고 지각한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점수가 유의하게 높아 집단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1).

Table 1. Date Sexual Violence Victim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560)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	M±SD	t or F	p
Sex	Male	144 (25.7)	1.74±0.81	5.09	<.001
	Female	416 (74.3)	1.45±0.49		
Marriage state	Married	15 (2.7)	1.49±0.53	-0.24	.816
	Unmarried	545 (97.1)	1.52±0.60		
Religion	Yes	255 (45.5)	1.52±0.63	-0.20	.845
	No	305 (54.5)	1.53±0.58		
Parental types	Both-parents	503 (89.8)	1.52±0.59	0.46	.713
	Step-parents	16 (2.9)	1.47±0.49		
	Single-parent	38 (6.8)	1.58±0.79		
	Orphan	3 (0.5)	1.85±1.08		
Grade	Freshman	133 (23.8)	1.42±0.50	2.06	.105
	Sophomore	120 (21.4)	1.52±0.68		
	Junior	137 (24.5)	1.55±0.59		
	Senior	170 (30.4)	1.58±0.62		
Residence	Metropolis	185 (33.0)	1.51±0.59	0.37	.689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299 (53.4)	1.51±0.59		
	Rural area	76 (13.6)	1.58±0.67		
Level of subjective sexual knowledge	Uncertain	58 (10.4)	1.50±0.59 ^a	4.51	.004
	Ordinary	262 (46.8)	1.45±0.54 ^a		
	Informed	191 (34.1)	1.57±0.57 ^a		
	Well informed	49 (8.8)	1.77±0.89 ^b		

$p < .01$ by Duncan's test.

2.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과 심리사회적 변수들의 정도

대상자의 자아존중감은 최대 5점 기준에서 평균 3.34점으로 보통 이상 수준이었고, 성역할 고정관념은 평균 2.40점으로 보통 수준, 성폭력 허용도는 1.46점으로 보통 이하 수준이었다.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는 3.67점, 성적 자기주장성은 3.92점으로 최대 5점을 기준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가정폭력경험 중 부의 폭력성은 1.78점, 모의 폭력성은 1.69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정도는 평균 1.52점이었고,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은 평균 1.52점으로 최대 5점을 기준으로 낮은 편이었으며,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의 정도는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3.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은 성폭력 인식도($r=-.11, p=.008$), 성적 자기주장성($r=-.13,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성이 있었고, 성역할 고정관념($r=.16, p<.001$), 성폭력 허용도($r=.35, p<.001$), 가정폭력경험(부

의 폭력 $r=.14, p=.001$, 모의 폭력 $r=.11, p=.008$),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r=.62,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즉 성폭력 인식도와 성적 자기주장성이 낮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허용도가 높으며, 부모로부터 폭력경험과 데이트 성폭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Measured Variables (N = 559: Listwise Deletion)

Variables	M±SD	Range
Self-esteem	3.34±0.49	1~5
Gender role stereotypes	2.40±0.64	1~5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1.46±0.51	1~5
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3.67±0.71	1~5
Sexual assertiveness	3.92±0.55	1~5
Father's violence	1.78±0.88	1~5
Mother's violence	1.69±0.76	1~5
Date sexual violence infliction	1.25±0.52	1~5
Date sexual violence victims	1.52±0.60	1~5

Table 3. Correlation Matrix of Major Variables

(N = 559: Listwise Deletion)

Variables	X1	X2	X3	X4	X5	X6	X7	X8
X1	1							
X2	-.10 (.021)	1						
X3	-.12 (.004)	.39 ($<.001$)	1					
X4	.07 (.109)	-.25 ($<.001$)	-.25 ($<.001$)	1				
X5	.177 ($<.001$)	-.43 ($<.001$)	-.37 ($<.001$)	.46 ($<.001$)	1			
X6	-.05 (.282)	.03 (.487)	.06 (.191)	.03 (.551)	.03 (.430)	1		
X7	-.11 (.009)	-.01 (.915)	-.02 (.648)	.08 (.062)	.10 (.020)	.41 ($<.001$)	1	
X8	-.06 (.169)	.26 ($<.001$)	.40 ($<.001$)	-.14 (.001)	-.26 ($<.001$)	.13 (.002)	.09 (.044)	1
X9	-.08 (.070)	.16 ($<.001$)	.35 ($<.001$)	-.11 (.008)	-.13 (.001)	.14 (.001)	.11 (.008)	.62 ($<.001$)

X1=self-esteem; X2=gender role stereotypes; X3=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X4=dating sexual assault recognition; X5=sexual assertiveness; X6=father's violence; X7=mother's violence; X8=date sexual violence infliction; X9=date sexual violence victims.

력 가해경험이 많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예측 요인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을 예측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자아존중감’, ‘가정폭력경험’, ‘성역할 고정관념’, ‘데이트 성폭력 인식도’, ‘성폭력 허용도’, ‘성적 자기주장성’,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 변수를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Stepwise 변수 선택방법에 의해서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4개의 독립변수인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 ‘성폭력 허용도’, ‘자아존중감’, ‘성적 자기주장성’ 변수가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Table 4와 같이 나타났다. 변수 간의 관련성의 강도를 분석하기 위해 표준화된 변수로 이용한 회귀계수 값을 비교해 보면,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60, 성폭력 허용도.12, 자아존중감 -.11, 성적 자기주장성 -.08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정리하면,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 성폭력 허용도, 자아존중감, 성적 자기주장성 변수는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의 변동량의 41%가 설명이 가능함을 알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규명함으로써 데이트 성폭력 예방 및 간호중재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데이트 성폭력을 많

이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데이트 성폭력 피해를 더욱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확인된 Kim (1999)의 연구와는 일치하지만,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데이트 성폭력 피해를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들 (Jang, 2002; Jang & Cho, 2001; Kim, 2005)과는 다른 결과이다. 또한 다른 폭력과 달리 데이트 성폭력은 폭력을 행하는 주체가 어느 쪽이 더 많은가에 대한 연구결과가 다양하다. 데이트 남성이 폭력을 더욱 많이 행사한다는 연구결과 (O'Keefe, 1997)도 있고, 남성과 여성이 비슷한 비율로 폭력을 행사한다는 보고(Ahn, 2002)도 있으며, 여성이 더욱 빈번하게 폭력을 사용한다는 연구결과(Kim, 1999)도 있다.

이와 같이 연구들 간의 상반된 결과는 어떤 성이 데이트 성폭력의 주된 피해자인지를 불분명하게 하는데, 남녀 간의 폭력이 비슷한 비율로 나타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떤 학자는 조사방법상의 문제점을 들고 있다. 즉 단지 폭력의 행사 유무에만 초점을 둔다면 폭력에 내재하는 중요한 측면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다(Ahn, 2002). 남성들의 폭력이 공격적 성향이 강하다면 여성들이 사용하는 폭력은 상대방의 공격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다(O'Keefe, 1997). 이는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사용한 폭력과 자기-방어적 차원에서 사용한 폭력은 달리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성폭력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본 연구결과는 데이트 폭력에 있어 뚜렷한 희생자와 가해자가 구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항상 피해자만이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친밀한 사이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성폭력 피해에 대해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데이트 성폭력이 개인적인 성문제가 아닌 성폭력의 문제임을 인식시켜 예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성지식 수준이 높은 집단이 데이트 성폭력

Table 4. Predictive Variables on Date sexual Violence Victims in University Students

(N = 559: Listwise Deletion)

Variables	B	β	t	p
Constant	0.54	0.22	2.48	.013
Date sexual violence infliction	0.70	0.60	16.57	< .001
Self-esteem	-0.14	-0.11	-3.31	.001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0.14	0.12	3.30	.001
Sexual assertiveness	-0.09	-0.08	-2.33	.020
Adj. R ² = .41; F = 97.09; p < .001				

피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성지식이 많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성행위나 성에 대한 언급을 하려고 수치감이나 죄의식을 덜 느껴서 성에 있어서 허용적인 성 태도가 나타나기 때문으로 시사되며, 주관적으로 알고 있는 올바른 성지식 정도의 차이, 성지식의 습득 경로와 성지식의 내용과 질이 어떠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들이 실제로 얼마나 더 정확하게 성지식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은 자아존중감, 성폭력인식도, 성적 자기주장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성이 있었고, 성역할 고정관념, 성폭력 허용도,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 가정폭력경험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아존중감, 성폭력 인식도와 성적 자기주장성이 낮고,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폭력 허용도가 높으며,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과 부모로부터 폭력경험이 많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 간 폭력 및 부모로부터의 폭력을 경험한 집단이 데이트 성폭력 허용도가 더 높았고, 폭력 허용도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신체적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이 더 높게 나타난 Yu (2000)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는 대학생의 어린 시절 가정폭력 목격 및 부모로부터 받은 폭력 피해경험은 자신들의 데이트 폭력 피해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적자기주장성이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과의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성적 자기주장성을 낮게 하여 데이트 성폭력에 이르게 한다는 연구결과(Lee & Lee, 2005)와 일치한다. 여성이 전통적인 성역할을 많이 수용할수록 데이트 상황에서의 성적 자기주장이 낮아지고, 성적 자기주장을 못할수록 데이트 성폭력의 피해 확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을 예측하는 요인들은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 자아존중감, 성폭력 허용도, 성적 자기주장성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들 변수가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을 4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 정도가 높고, 자아존중감이 낮으며, 성폭력 허용도가 높고, 성적 자기주장성이 낮을수록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성폭력 피해의 유경험자들이 성폭력

가해로 인해서 성적 및 심리적 후유증을 보이고 있다는 Lee (200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데이트 폭력의 피해와 가해가 일방적으로 한쪽에 의해서 행해질 때보다, 상호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피해 정도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는데, 두 남녀가 연인이면서 동시에 피해자-가해자 관계를 꾸준히 지속시키면서, 데이트 폭력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성폭력 피해와 가해를 별개의 상황으로 분리해서 접근하기 보다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있어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는데, 본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변수임이 확인되었다. Lee (2007)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심리적·신체적·성적 데이트폭력의 피해경험 정도도 더 높다는 결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데이트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O'Keefe (1997)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되는 결과이다.

낮은 자아존중감은 성폭력 피해를 장기화시키고 심리적, 신체적, 성적인 데이트폭력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자아존중감 증진 프로그램과 더불어 실질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폭력 허용도가 확인되었다.

이는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사람일수록 더 많은 폭력행동을 하게 된다는 선행연구결과들(Jang, 2002; Jang & Cho, 2001; Lee, 2007)과 성폭력 허용도에 있어서 폭력에 대해 더 허용적인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들(Kim, 2005; Yu, 2000)과 일치하는 결과로써, 폭력에 대해 허용적이라는 것은 자신이 한 행동이나 타인이 한 행동을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데이트 상대방에게 성폭력을 행사하거나 성폭력을 당하고서도 그것이 잘못된 행동임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허용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성폭력 허용도가 이성교제 시 데이트 성폭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연구변수로 확인되었으며 폭력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는 전반적으로 폭력의 가해경험과 피해경험과 연관되어 있어 사회의 폭력 수용도에 영향을 받아 형성되므로,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사회적 분위기에 대한 환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성적

자기주장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여대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전통적인 성역할의 수용이 여성의 성적 자기주장성을 약화시켜 데이트 상황에서의 피해를 유발하게 되는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Lee & Lee, 2005)와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적자기주장은 인간의 자율권에 기초한 일반적인 자기주장을 바탕으로 하여 여성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한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모든 성적 경험에 적용되는 인간의 기본권리 중 하나(Patricia et al., 1997)로 원치 않거나 안전하지 않은 성 접촉 상황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성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요소이며, 여성의 성적 자율성을 획득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다(Choi, 2005). 또한 성적인 의사소통의 통로가 막혀있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배경에서 자라난 여학생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성 접촉의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그 상황을 피해가는 능력인 자기주장은 우발적인 성 행동을 예방하는 중요한 개인적 능력이며, 이러한 성적 자기주장에 대한 연구가 여성들을 대상으로 널리 연구되어져 있다(Lee & Lee, 2005; Patricia et al., 1997). 특히 성적 접촉에 있어서 타협할 때 애매모호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은 상호간에 성적으로 공격적 행동화를 조장하며 성적 희생자를 만들 수 있는 위험이 증가하게 되며(Choi, 2005), 일상생활에서 아직도 성에 대한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하지 못하고, 성 행동에 있어서 자신의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사회 문화적인 차이가 중요한 영향요인이므로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성적 자기주장 훈련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있고, 데이트 성폭력의 발생비율도 증가하고 있지만, 데이트 성폭력의 경우 명백한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그리고 일반인들도 성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서비스는 문제발생 후 상담 및 치료 차원에서 피해 대상자에게 이루어졌으나, 데이트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데이트 성폭력 인식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데이트 성폭력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므로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 자아존중감과 성폭력 허용도 및 성적 자기주장성을 고려하여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여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예방과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되었다.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이성교제경험이 있는 대학생 560명을 대상으로 2008년 5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설문지 조사법을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데이트 성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요인은 자아존중감, 성폭력 허용도, 성적 자기주장성, 데이트 성폭력가해경험으로 확인되었으며 설명력은 41%이었다. 즉 자아존중감이 낮고, 성폭력 허용도가 높으며, 성적 자기주장성이 낮고, 데이트 성폭력 가해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데이트 성폭력 피해를 더 많이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폭력 및 성관련 교육과정이 편성된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데이트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대처방법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내 성폭력 상담소 및 학생생활연구소 등에서 개인 상담 및 집단상담 등의 성폭력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 특성에 따른 데이트 성폭력 인식의 정도를 감안하여 다양한 지역의 남녀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반복연구와 데이트 성폭력 피해자 심리치료나 회복뿐만 아니라 가해자 성폭력 예방교육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Ahn, G. Y. R. (2002). Personal risk factors related to dating violence.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9*, 55-75.
- Choi, M. H. (2005). *Factors influencing sexual assertiveness among women college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Diann, M. A., & Dianne, N. (2002). Date violence and date rape among adolescents: Association with disordered eating behaviors and psychological health. *Child Abuse & Neglect, 26*, 455-473.
- Emilio, C. U., & Monica, D. U. (2008). Sexual relationship power as a mediator between dating violence and sexually transmitted infections among college.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7*(9), 539-565.
- Jang, H. S., & Cho, H. G. (2001). The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8*, 197-204.

- Jang, M. S.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es of sexual violence at school and mental health, sexual attitudes among male & female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oseo University, Seoul.
- Jang, Y. K. (2002). *A study on date sexual violence victims exper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im, D. I. (1999). *Sociology of gender*. Seoul: Muneumsa
- Kim, H. S. (2001). *The sexual behavior by the attachment and love style in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doctor's thesis, Dongguk University, Seoul.
- Kim, J. R. (1999). *College students' dating violence and coping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Kim, N. Y. (2002).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exual violence severity and negative life attitude on the mental health*.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Kim, O. S. (2005). *The effects of family violence & tolerance towards violence on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students victim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eongju.
- Kim, Y. J. (2006). *The effect of sexual decision-making ability and sexual attitude of high school gir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University, Changwon.
- Koh, H. R. (2006). *(An) Analysis of rape case perception difference: With special to sex-role stereotype, rape myths effec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2000). *A study on the Korean sexuality and sexual violence*. Seoul: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Lee, J. H. (2007). *Psychological symptoms of date viol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 Lee, J. Y., & Lee, E. S. (2005). The explanatory models of dating violence and victimization with dating partners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7*(2), 419-436.
- Luthra, R., & Gidycz, C. A. (2006).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men and women: Evaluation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6), 717-731.
- Nam, H. M. (2003). *A study on predicting date rape among university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Nam, W. K. (2008). *A study on experiences and factors of sexual violence while dating among unmarried men in Bus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Busan.
- O'Keefe, M. (1997). Predi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4), 546-568.
- Park, M. R. (2007). *Relationships among gender role attitudes, sexual attitudes, impulsivity,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and sexual violence permissive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Masan.
- Patricia, J. M., Kathryn, Q., Lisa, L. H., Laura, W., Diane, M.G., Pamela, R. G., et al. (1997). Sexual assertiveness scale for women: Development and valid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4), 790-804.
- Rohini, L., & Christine, A. G. (2006). Dating violence among college men and women: Evaluation of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1*(6), 717-73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o, K. H., & Lee, K. S. (2002). Anger, psychoticism, and addiction in dating violence inflictors and recipient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7*(3), 353-368.
- Song, H. S. (2006). *A study of college students in the relationship among sexuality, self-assertiveness and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University, Jinju
- Straus, M. A. (1979).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dating partners by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worldwide. *Violence against Women, 10*(7), 790-811.
- Sugarman, D. B. (1996). Risk marker analysis of husband-to-wife violence: A continuum of aggress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6*(4), 313-328.
- Yu, S. H. (2000). *(A) Study on the factor mediating the link between family violence victimization and dating violence victimization of college women: Focusing on the acceptability of dating viol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